

2024년 12월 01일의 소식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초**복교회



2024년 12월 1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나는 주만 높이리 말씀하소서 마음의 예배	Behold
기도		장보라 자매
성경봉독	사무엘상 2장 12절 -36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하나님 말씀으로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최동현 목사
축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12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기화 (12/6), Kevin Lee (12/6), 송강현 (12/9), 송윤숙 (12/15), 안금자 (12/16), 이해천 (12/24), 진예찬 (12/28)
 - 오늘 친교 | 정성원 형제, 이정/서혜빈 부부, 진예찬/이윤정 부부가 함께 준비해주었습니다.
 - BEHOLD CLASSIC 연주 | 12월 14일 토요일
새축복교회에서 비홀드 클래식 of 성가 및 캐롤 연주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연주의 신청곡을 받고 있으니 원하시는 곡이 있는 분은 송윤숙 자매 또는 정지혜 자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실/무대공사 | Fire Inspection을 위해 장진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방송실과 본당 앞쪽 무대를 공사했습니다.
 - 감사카드 | 지난주부터 작성한 감사카드를 오늘도 받고 있으니 올해의 감사제목을 적어서 감사박스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부 총회 | 12월 8일 주일 예배 후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2/01	장보라	IE종아셀
12/08	송윤숙	럽셀
12/15	김하진	예수파셀
12/22	연합예배	연합예배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새가족 교육 (3주)
 세례자 교육 (5주)
 결혼 학교 (4주)
 통독 훈련 (매년 1번)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1201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무엘상 2장 12절 - 3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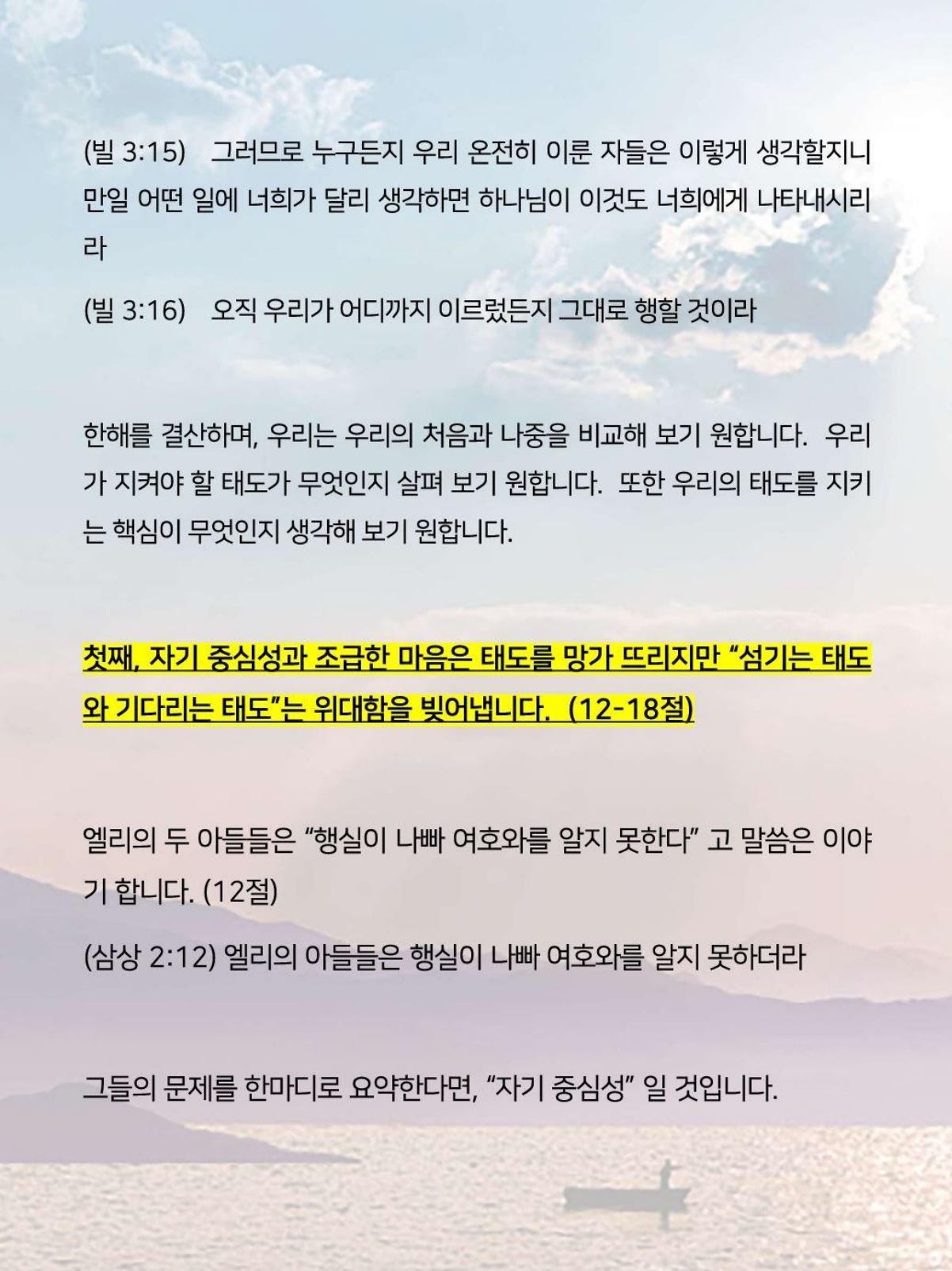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이라고 부르는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연말은 어떤 때일까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즌입니다. 여러 명절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밸런스 게임 하나를 해 보기 원합니다.

첫 마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끝 마음이 중요할까요?

빌립보서 3장/ 그대로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빌 3:14)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3)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빌 3: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해를 결산하며,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태도를 지키는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자기 중심성과 조금한 마음은 태도를 망가 뜨리지만 “섬기는 태도와 기다리는 태도”는 위대함을 빛어냅니다. (12-18절)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고 말씀은 이야기 합니다. (12절)

(삼상 2: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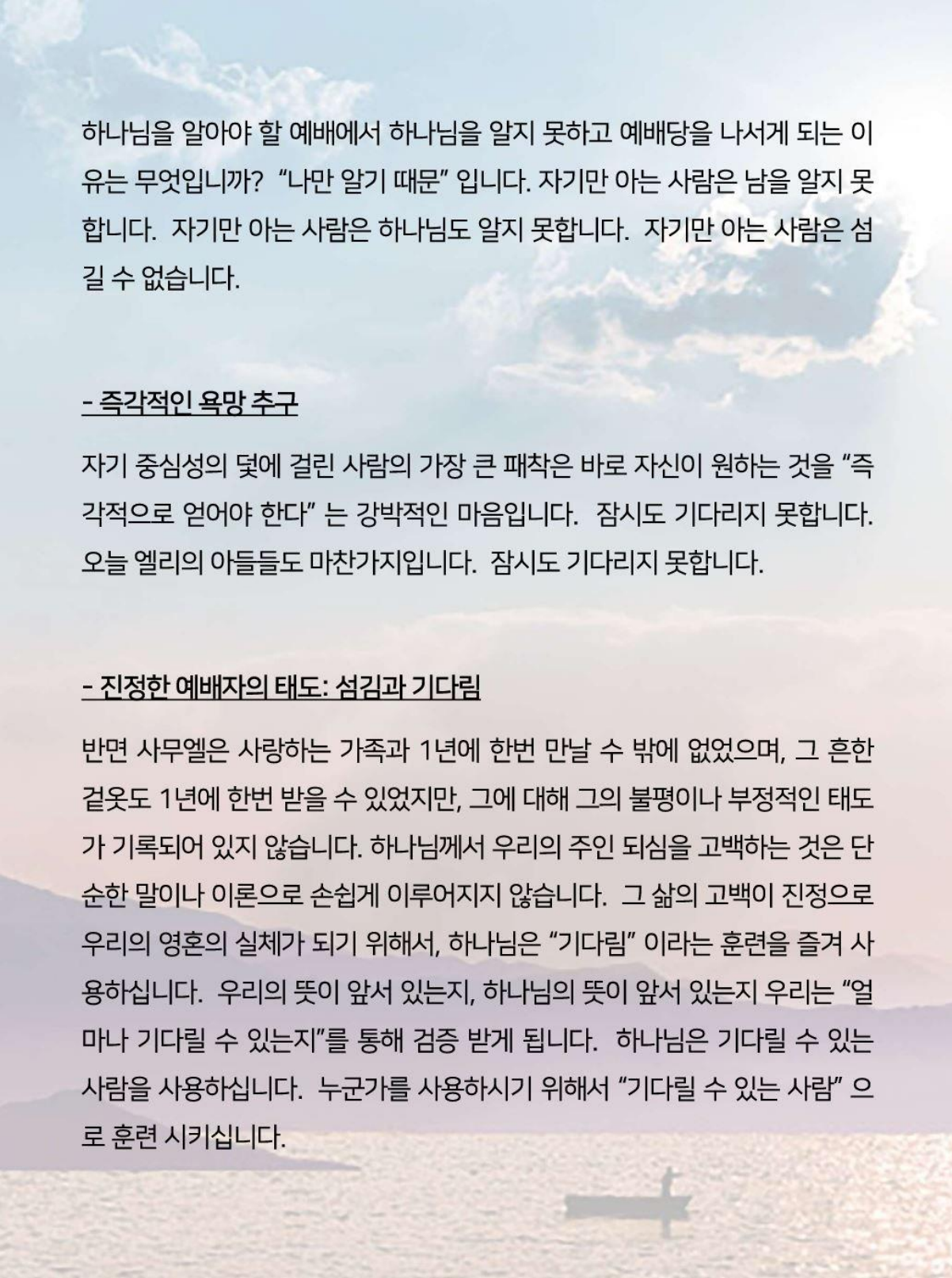
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 중심성” 일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어야 한다” 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피고 분별해야 할 시대정신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시대 정신 입니다. 말씀은 12절과 18절에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이 지점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중에서 가장 무섭고 신랄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직무에 대해서 레위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에 나타난 제사의 절차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받을 몫으로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살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자신의 것으로 강탈해 간 것입니다.

- 자기 중심성의 덫

이들의 예배는 “자신을 위한 것”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 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참 너만 안다.”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만 살피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예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당을 나서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알기 때문” 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남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 즉각적인 욕망 추구

자기 중심성의 덫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패착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어야 한다” 는 강박적인 마음입니다. 잠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 섬김과 기다림

반면 사무엘은 사랑하는 가족과 1년에 한번 만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흔한 겹옷도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해 그의 불평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나 이론으로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삶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림” 이라는 훈련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앞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를 통해 검증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으로 훈련 시키십니다.

나눔 질문

Q. Q.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섬김과 기다림에 있어서 훈련 받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섬기며 성장하셨습니까? 올 한해 기다리기 어려웠던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기다리며 배운 것, 훈련 받은 것,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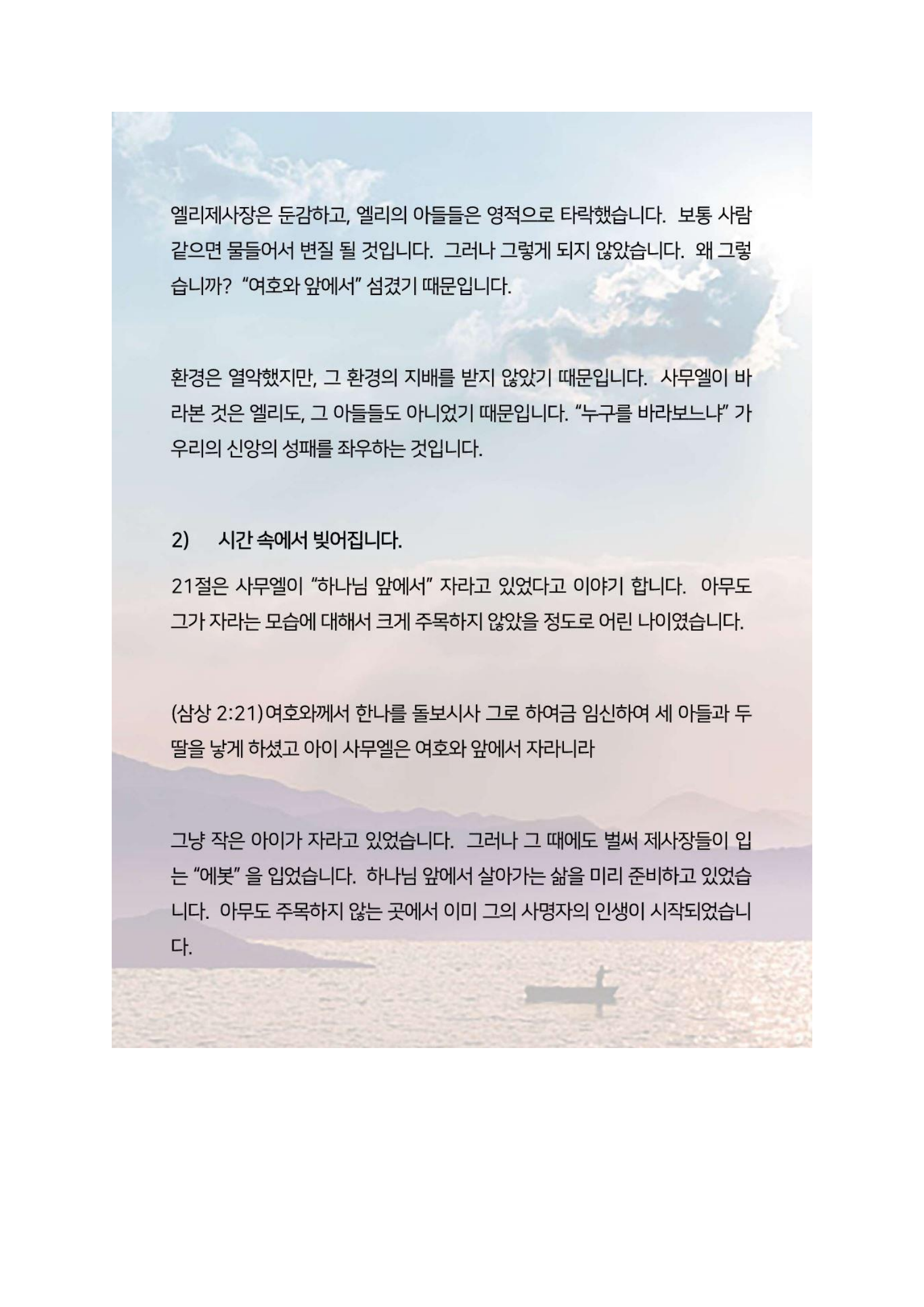
둘째, 작은 변화의 걸음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한 순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결과를 향해 점프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위대함은 조용하고 잠잠한 순간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 님께서 점진적으로 허락하시는 성숙이자 성장의 열매입니다.

1) 시선 속에서 빚어집니다. 머물러 섬기라

18절에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겼다” 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섬김” 입니다. 섬기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 절이 1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지냈습니다.



엘리제사장은 둔감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들어서 변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것은 엘리도, 그 아들들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가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2) 시간 속에서 빛어집니다.

21절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무도 그가 자라는 모습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삼상 2:21)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냥 작은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벌써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그의 사명자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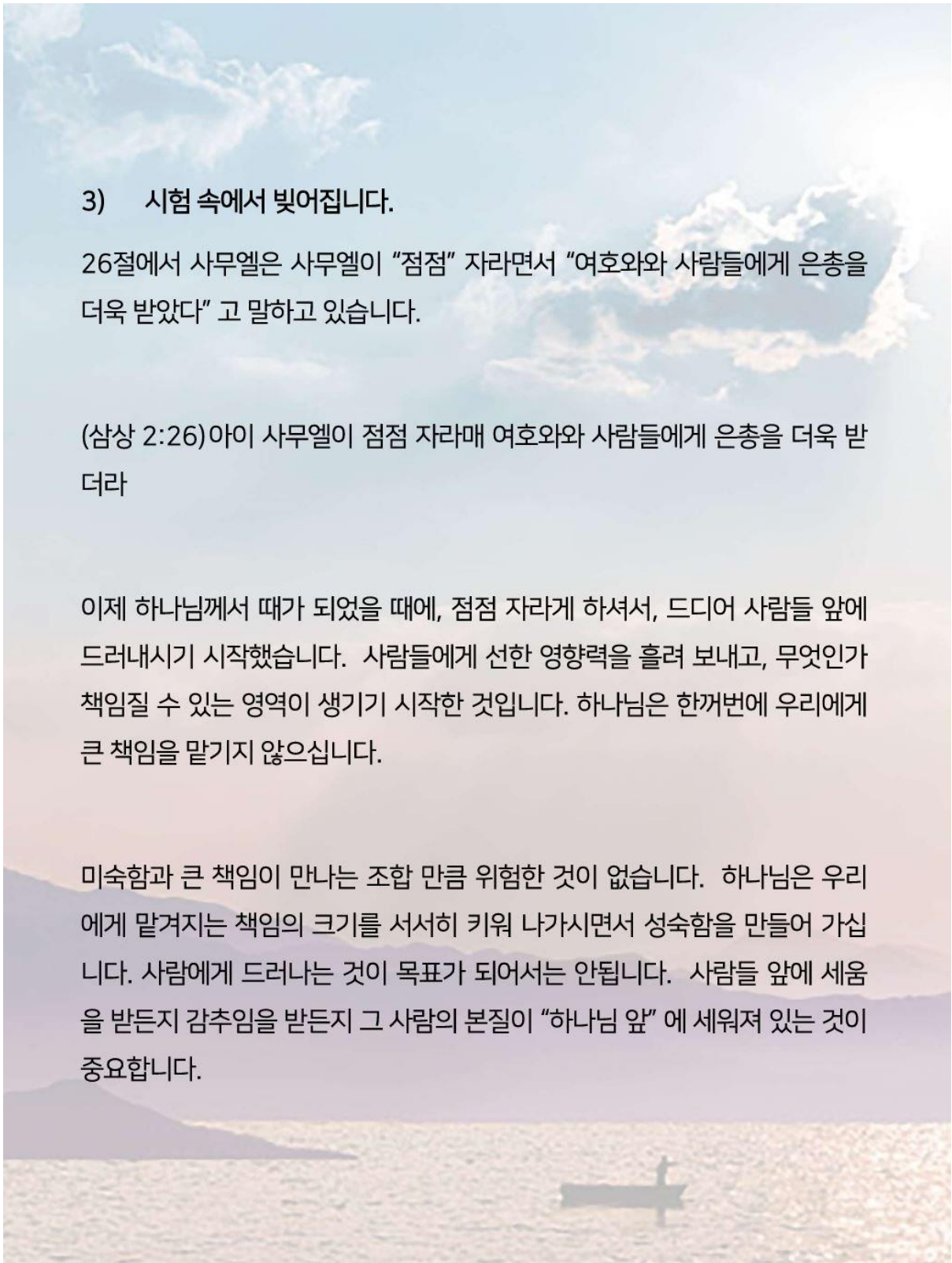
3) 시험 속에서 빚어집니다.

26절에서 사무엘은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상 2:26)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점점 자라게 하셔서, 드디어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고, 무엇인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큰 책임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미숙함과 큰 책임이 만나는 조합 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지는 책임의 크기를 서서히 키워 나가시면서 성숙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 앞에 세움을 받든지 감추임을 받든지 그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 앞” 에 세워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 질문

Q. 주변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받으십니까? 환경의 영향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Q.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과 변화는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Q. 여러분은 “꾸준함”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꾸준함 속에서 열매를 맺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이번 팀을 시작하면서 셀원들과 약속했던 서약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얼마나 꾸준히 그 약속 안에 머무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약속 안에 얼마나 꾸준히 머물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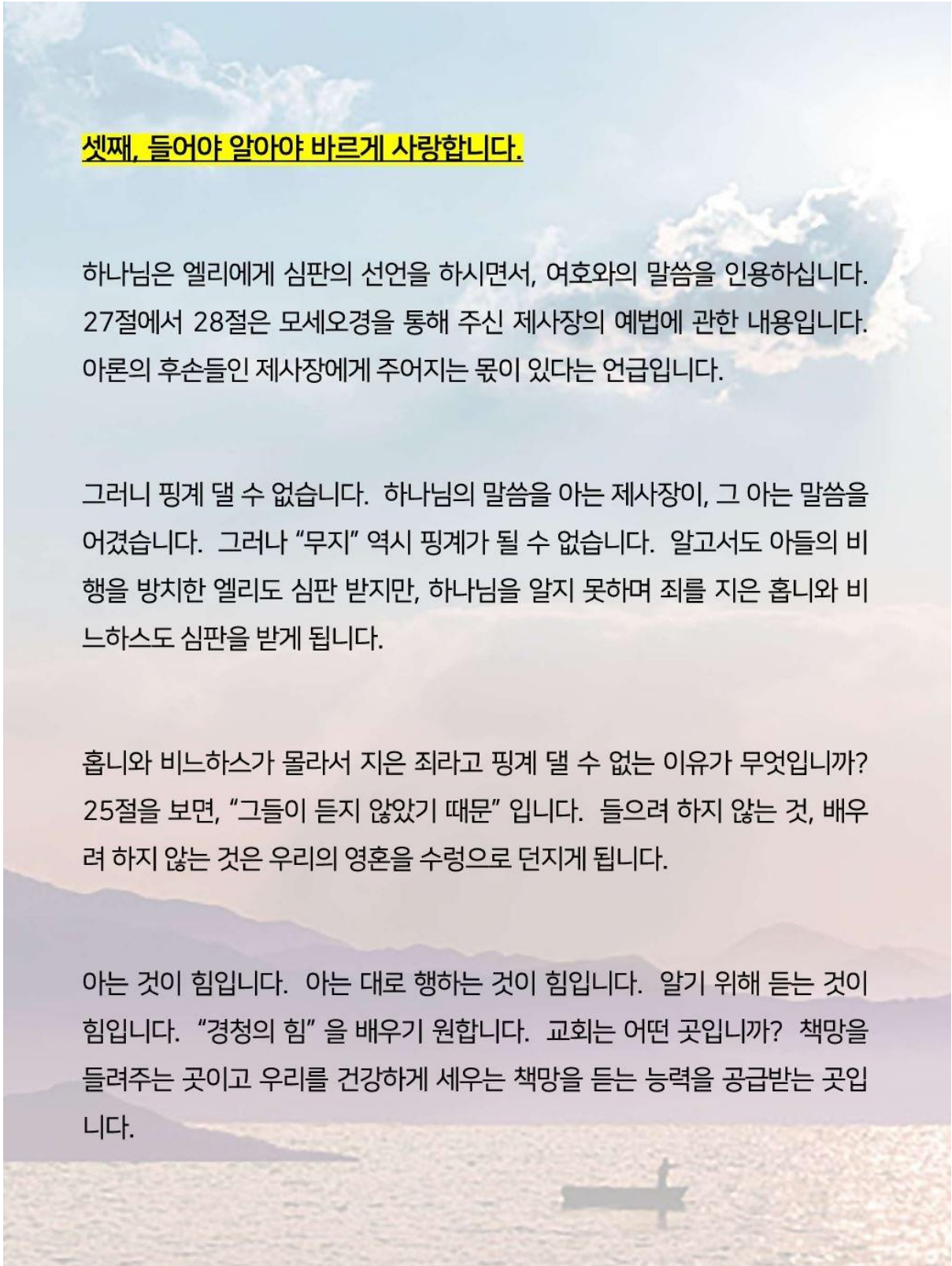
셋째, 들어야 알아야 바르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심판의 선언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은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제사장의 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다는 언급입니다.

그러니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사장이, 그 아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무지” 역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알고서도 아들의 비행을 방치한 엘리도 심판 받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죄를 지은 홉니와 비느하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몰라서 지은 죄라고 핑계 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수렁으로 던지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힘입니다. 알기 위해 듣는 것이 힘입니다. “경청의 힘” 을 배우기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책망을 들려주는 곳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는 책망을 듣는 능력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나눔 질문

Q. 한해를 지나는 동안 나는 얼마나 더 “듣는 사람” 이 되었습니까? 나의 “경청의 능력” 은 얼마나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Q. 한해를 지나는 동안 나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 올해 나의 마음을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